

제국대학 영문학과 출신 이효석과 나쓰메 소세키의 근대수용과 작품세계*

안영희**

|| 차례 ||

- I. 머리말
- II. 제국대학 영문학과 출신 나쓰메 소세키와 이효석의 근대수용
- III. 도쿄제대 출신 나쓰메 소세키의 작품세계 - 서구 비판에서 제국주의로
- IV. 경성제대 출신 이효석의 작품세계 - 현실비판에서 서정세계로
- V. 마무리

【국문초록】

제국대학이란 1886년에 공포된 제국대학령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이다. 일본 내지(도쿄, 교토, 도호쿠, 규슈, 홋카이도, 오사카, 나고야)와 식민지(경성, 타이페이)에 설립되었다. 제국대학은 부국강병을 위해 필요한 인재 양성, 즉 제국 일본에 적합한 ‘관료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다. 제국대학 영문학과는 영국과 미국을 모델로 한 일본의 근대화에 있어서 영미세계를 수용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학과였다.

도쿄제국대학 영문학과 출신인 나쓰메 소세키는 첫 작품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서 문명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하지만 말년의 작품인 『마음』에서는 제국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도쿄제국대학 영문학과에서는 일본 근대를 대표하는 문호이며 국민작가인 나쓰메 소세키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 이 연구는 2018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교수

경성제국대학 영문학과 출신인 이효석은 초기작품인 『도시와 유령』에서 사회적 빈곤의 문제를 다루면서 현실비판을 하였다. 하지만 후기 작품인 『메밀 꽃 필 무렵』이 되면 점점 현실성은 사라지고 서정성이 짙은 작품을 쓰게 된다. 결국 이효석은 일제 말기 내선 일체의 사상을 다룬 일본어 소설을 창작했고, 마침내 친일의 길을 걸었다. 이효석을 포함한 대부분의 식민지 지식인들은 제국대학에서 설립 목적에 이탈하는 길을 걷지 못했다. 이것이 경성제대 영문학과 식민지 지식인들의 한계였다.

주제어: 제국대학, 도쿄제대, 경성제대, 나쓰메 소세키, 이효석, 영문학

I. 머리말

제국대학이란 1886년에 공포된 제국대학령에 의해 설립된 구제고등교육기관이다. 일본과 식민지에 설립되었다.¹⁾ 제국대학(이하 제대)은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제대로 불리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제대는 부국강병을 위해 필요한 인재 양성, 즉 제국 일본에 적합한 ‘관료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다. 초대 문부대신으로 일본 근대 교육 제도의 기반을 닦았던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는 제대를 “미국의 대학보다 수준이 높고 유럽의 대학에 뒤지지 않는 대학”²⁾으로 만들려고 했다. 따라서 철저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소수의 엘리트층을 교육하였다. 메이지정부는 제대 졸업생들에게 고급관리와 교원임용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서 우대정책을 취하였고 최

1) 일본 본토에는 1)1886년 도쿄제대(東京帝國大學), 2)1897년 교토제대(京都帝國大學), 3)1907년 도호쿠제대(東北帝國大學), 4)1911년 규슈제대(九州帝國大學), 5)1918년 홋카이도제대(北海道帝國大學), 6)1931년 오사카제대(大阪帝國大學), 7)1939년 나고야제대(名古屋帝國大學)가 있다. 식민지에는 1)1924년 경성제대(京城帝國大學, 1946년 해체), 2)1928년 타이페이제대(臺北帝國大學) 등이 있다.

2) 윤종현, 『근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학제 변천 과정 비교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8, p.33.

고의 혜택을 주었다.

일본의 근대화와 영어·영문학은 매우 관련이 깊다. 도쿄제국대학(이하 도쿄제대) 영문학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 화폐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모두 영어의 달인이었다는 점이 이를 대변해준다. 아시아를 탈피해 구미에 진입하자는 탈아입구(脫亞入歐)론의 주창자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영문으로 집필한 『무사도』(1900)를 미국에서 출판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 도쿄제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영국유학 후, 영문학 교수가 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가 그 예이다. 그들이 모두 영어와 영문학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은 일본 근대화의 모델이 미국과 유럽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영어 수용은 일본의 근대화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다. 또한 일본의 근대화 과정은 일본의 제국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³⁾ 제국의 지식인 나쓰메 소세키는 도쿄제대에서 영문학을 통해 근대를 수용하게 되고 일본 문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일본 근대화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한편 식민지 조선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 영문학과에 우수한 한국인 학생들이 많이 모였다. 여기에서 식민지 조선 문학을 주도한 대표적인 문학가인 이효석, 최재서, 조용만 등이 배출되었다. 이들이 영문학과에 모인 것은 “외국문학에 대한 갈증”과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당시 영문학과 교수인 사토 기요시가 회상하고 있다.⁴⁾ 경성제대 영문학과는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이 일본을 통해 영미세

3) 윤수안, 『‘제국일본’과 영어·영문학』, 소명출판, 2014, p.16. 참고.

4) 사노 마사토(佐野正人), 「경성제대 영문과 네트워크에 대하여 -식민지 시기 한국문학에 있어서 ‘영문학’과 이중언어 창작」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6집, 한국현대문학회, 2008, p.324. (사토 기요시 「경성제대 문과 전통과 학풍」, 『英語青年』, 1959)제 인용.

계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 또한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영문학과는 다른 학과와 달리 정치적인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지만 제국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양성기관이었던 경성제대 영문학과에서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찾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들은 ‘제국대학’과 “민족의 해방과 자유”라는 극복하기 힘든 간극 사이에서 수많은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효석을 비롯한 경성제대 영문학과 출신의 문학적, 사상적 여정을 통해 그 갈등을 읽을 수 있다.⁵⁾

이 논문에서는 제국대학 영문학과 출신인 나쓰메 소세키와 이효석의 근대수용과 작품세계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제국대학 영문학과와 근대수용, 그리고 제국과 식민지 지식인의 사상적 여정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제국대학 영문학과 출신 나쓰메 소세키와 이효석의 근대수용

1. 도쿄제대 영문학과 출신 나쓰메 소세키의 근대수용

구미열강이 제국주의화되어 가는 시대에 근대화를 추진한 메이지 신정부는 새로운 근대국가의 모델을 서양에서 구했다. 그중에서도 당시 제국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영국, 그리고 일본을 건국으로 인도한 미국을 스승으로 받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⁶⁾ 제국의 언어인 영어와 영문학은 일본이 근대화

5) 선행연구는 경성제대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지만 제국대학 영문학과 출신 나쓰메 소세키와 이효석을 조명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다.

6) 齋藤兆史, 『日本人と英語』 講談社, 2007, p.5.

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었다. 도쿄제대 영문학과도 일본의 근대화
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내각은 제국대학령을 내리고 도쿄대학⁷⁾을 제대로 바꾸면서
영문학과를 개설하였다. 근대 일본은 영문학의 필요성을 메이지시대부
터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대로 이름이 바뀌기 전의 도쿄대학에서도
일문학과와 한문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영문학을 3년간 이수하게 하였
다. 하지만 영문학과라는 학과가 개설이 된 것은 제대가 설립되면서이다.
이는 제국의 ‘관료 양성’이라는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일본제대는
당시의 최고 엘리트만이 가는 종합대학이었고, 아직까지도 그 위상을 자랑
하고 있다.

당시 도쿄제대 영문학과 교수는 제임스 메인 디슨(James Main Dixon)
과 라프카디오 헤른(고이즈미 야쿠모)이 있었다. 나쓰메 소세키는 제임스
메인 디슨의 수업을 들었다. 제임스 메인 디슨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문
학자로 일본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다. 라프카디오 헤른은 그리스 출신 일본
인 귀화작가로 유명하며 일본의 괴담과 민담을 수집한 『괴담』의 작가이
고 일본의 문화를 서구에 소개한 선구자이다. 도쿄제대 영문학과에서 학생
들은 서구출신의 교수한테서 직접적으로 영미세계를 접하였다. 도쿄제대
영문학과 출신으로는 나쓰메 소세키, 사이토 다케시(齋藤勇), 우에다 빈
(上田敏),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구메 마사오(久米正雄), 나
가요 요시로(長與 善郎), 다카미 준(高見順), 시가 나오야 (志賀直哉), 가

7) 제국 일본은 제국대학령에 따라 일본의 유일한 대학이었던 도쿄대학(1877년 설립)을
제국대학(1886년)으로 개칭하였다. 그로부터 약 10년간은 제국대학으로 불렸으나
1897년에 교토제국대학이 설립되면서 제국대학을 도쿄제대로 개칭하였다. 이후 제국
대학은 제국대학이 폐지된 1947년까지 제국대학령에 따라 설치된 여러 대학을 총칭
하게 되었다.

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등 문학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다.⁸⁾ 이처럼 도쿄제대에는 문학사에서 거론되는 유명한 작가들이 대대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제대 출신들이 일본근대문학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쿄제대 문과대학 학생들은 제국문학회라는 문학단체를 만들어 『제국대학(帝國文學)』(1895-1920년)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다. 총 296권이 간행되었다. 이 잡지는 낭만주의와 반자연주의의 거점이 되었지만 종합적으로 아카데미한 연구논문적인 색채가 강하다. 나쓰메 소세키의 『런던탑』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나생문』 등이 실리기도 했다. 한편, 『제국대학』에 대한 대항으로 동경제대의 동인지인 『신사조(新思潮)』(1907-1979년)가 나오게 되었다. 『신사조』는 종합적인 문예잡지로 나쓰메 소세키의 문하생이 많으며 다이쇼문학의 거점이 되었다. 1차에서 4차까지의 동인지(1907-1917년)가 문학사적으로 중요하다. 1907년 제1차동인지는 오사나이 가오루(小山內薫)가 해외의 신사조를 소개하기 위해 창간한다. 제2차동인지는 도쿄제대 문과의 동인잡지로 계승된다. 제2차동인지에서 다니자키 준이치로, 제4차동인지에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문단에 배출된다. 이처럼 도쿄제대 학생들은 『제국대학』 『신사조』를 중심으로 서구의 근대를 수용하여 일본근대문학의 모델을 제시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간다.

도쿄제대 영문학과⁹⁾에서는 메이지문학을 대표하는 나쓰메 소세키, 다

8) 그 외에도 도쿄제대 출신은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 국문과), 모리 오가이(森鷗外, 의학부), 나카노 시게하루(中野 重治, 독문과),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불문과 중퇴),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법학부) 등이 있다.

9) 나쓰메 소세키(1890년 입학~1893년 졸업)는 1886년 도쿄대학에서 제국대학으로 개칭된 이후 제국대학 영문학과에서 재학했으나 1897년에 도쿄제대로 이름이 개칭된다. 따라서 나쓰메 소세키는 제국대학 영문학과를 입학하고 졸업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경성제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나쓰메 소세키가 다닌 제국대학을 도쿄제

이소문학을 대표하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를 배출한다. 나쓰메 소세키는 제대에 영문학과가 개설되고 4년 뒤인 1890년에 입학하고 1893년(26세)에 졸업한다. 그는 영문과를 2번째로 졸업했으나 그 해 졸업생은 나쓰메 소세키 한 사람뿐이었다.¹⁰⁾ 도쿄제대는 소수의 수재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었으며 나쓰메 소세키가 입학할 당시 적격자가 없으면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나쓰메 소세키는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00년 문부성 장학생으로 2년간 영국에 머물렀다. 그는 영국에 유학하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서구를 모델로 한 일본의 근대화에 대해 고민했다. 일본으로 돌아와 도쿄제대 영문학과 교수가 되었으나 교수직을 그만두고 아사히신문사 전속작가가 되었다. 그가 교수직을 그만둔 이유는 동양적인 근대의 창출을 문학을 통해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다이쇼시대 초기인 1913년에 동경제대 영문학과에 입학하며 1916년에 졸업하였다. 그는 나쓰메 소세키의 문하생이며 후배이기도 하다. 졸업생 20명 중에 2등으로 졸업한다. 다이쇼시대가 끝나자 그는 웬지 모를 시대적 불안감으로 35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의 죽음과 다이쇼문학의 종언이 겹치면서 그는 다이쇼를 대표하는 작가가 된다. 메이지시대의 나쓰메 소세키가 일본이 나아가야 할 근대화에 대해 고민한 작가라면, 다이쇼시대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제국 일본에서 개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내적갈등의 전형을 그리고 있다. 도쿄제대 영문학과는 일본 근대문학을 이끈 대표적인 학과이

대로 부르기로 한다.

10) 권혁진·박혜민, 「나쓰메 소세키의 생애와 문학에 미친 학벌 고찰-제국대학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50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11, p.188. 1886년에 제국대학에 졸업한 학생 수는 70명이었고 문과대학 문학전공으로 졸업한 학생은 4명이었다.

며, 영문학과와 성격의 이해하는 것은 곧 일본 근대문학의 성격을 밝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2. 경성제대 영문학과 출신 이효석의 근대수용

경성제대 예과가 1924년에 개설되고 2년 후인 1926년에는 본과가 개설되었다. 경성제대 문과에 우수한 한국인 학생들이 모인 것을 문과 초대 교수인 사토 기요시(佐藤清)의 회상에서 알 수 있다. 실제로 최재서, 이효석, 조용만 등 식민지시기 한국문학을 지탱한 문학자들을 배출한 것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¹⁾

경성제대는 일본제국이 식민지 조선에 설립한 여섯 번째 제대이다. 경성제대가 왜 설립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 최초의 제대인 도쿄제대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세계 대학의 역사를 조망해 보면 대학 설립에 영향을 끼친 것은 국가이다. 행정·사법·재무·군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만들고 정비하는 것이 근대국가의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의 도래와 제국 영토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국내와 식민지에서 복무할 행정관료·법관·재무관료·군인 등 전문 직업 집단을 양성할 교육기관이 긴급히 그리고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다.¹²⁾ ‘국가 관료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대학 설립과 존재의 기본적인 이유가 된 것이다.

도쿄제대 역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설립되었다. 메이지천황의 신정부는 “왕정복고 선언 직후부터 대학 창설에 나섰는데” 그 이유는 “신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관료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었기”¹³⁾ 때문이다.

11) 사노 마사토(佐野正人), 앞의 논문, p.319.

12) 이광주, 『대학사』, 민음사, 1997, p.6.

도쿄제대의 설립 목적이 ‘관료양성’에 있었던 만큼 일본의 모든 제국대학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식민지 조선에 설립된 경성제대의 설립 목적도 동일하였다. 일제는 경성제대 설립을 위해 이미 1922년부터 동경제대 출신자들을 구미 유명대학에 유학을 보내어¹⁴⁾ 학문적 소양을 함양하게 할 정도로 경성제대 운영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식민지를 관리할 우수한 관료 양성 작업이 장기적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경성제대는 ‘식민지 관리 양성’이라는 태생적 한계 아래 설립되었고, 이 한계는 경성제대 학과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학과 구성을 중심으로 경성제대의 특징을 제시하면 첫째, 공학 및 기초과학 관련학과가 없고, 둘째, 문학부 외국어·외국문학 전공의 경우 영문학 전공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문학부의 경우 도쿄제대에는 독일어·독문학, 프랑스어·프랑스문학 등 서구 제국의 언어와 문학 관련 학과가 전공으로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성제대에는 서구 언어·문화 관련 전공으로는 영어·영문학 관련학과만 개설되어 있었다. 이 시기 근대문물의 중심지가 영미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성제대 문학부의 외국어·외국문학 전공 개설은 ‘관료양성’의 실용적 의미에 기반을 두었을 것이다. 동경제대가 관료양성과 더불어 “연구와 교육의 충실”¹⁵⁾을 중요하게 간주한데 비하여, 경성제대는 ‘식민지 관료 양성’이라는 목적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경성제대 영문학과 개설에는 서구 여러 나라에 대한 일본의 판단이 전

13) 이이야마 다케시, 「일본근대대학의 성립과 발전과정」, 『인문과학연구』 제3집,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p.248.

14) 이충우·최종고, 『다시 보는 경성제대』 푸른사상, 2013, p.45.

15) 이토 히로부미는 대학 경영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1885년 메이지 내각을 구성하면서 국가적 급무로서 소학교와 실업교육의 충실, 그리고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의 충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이야마 다케시, 앞의 논문, p.262. 참조).

면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판단이란 일본이 서구 여러 나라 가운데 ‘미국과 영국’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배우고 접 촉해야 하는 서구의 핵심 근대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성제대 영문과 개설과 관련한 일본제국의 이러한 의중은 경성제대를 지원한 많은 조선 학생이 ‘영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성제대 영문학 전공자는 문학부 내 다른 학과 전공자 보다 실용적,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여 영문학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성제대 영문학과 학생들은 식민지 조선과 영미세계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일본제국을 매개로 간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었다. 식민지 조선의 영문학은 근대 일본을 통해 근대적 영미세계를 조망할 수 있었다. 전근대적 조선과 근대적 영미세계는 근대 일본을 매개로 불안정하게 조우하고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 조선은 근대일본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영미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의 근대를 수용하였을 것이다. 도쿄제대 영문학과에서 나쓰메 소세키는 서구출신 제임스 메인 디슨의 수업을 들었으며 영국유학을 통해 직접적으로 영미세계와 조우하고 서구의 근대를 수용하였다. 반면에 경성제대 영문학과에서 이효석은 도쿄제대 영문학과에서 나쓰메 소세키의 수업을 들었던 사토 기요시의 수업을 들으며 간접적으로 영미세계와 서구의 근대를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서구의 근대수용은 두 사람의 사상적, 문학적 여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영미세계를 대변하는 영문학은 당시의 식민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학문이기도 했다. 또한 경성제대는 일본의 정치적 욕망이 투영된 행정 관료 양성기관이었으며 근대적 학문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식민지 조선에 설립된 제대와 영문학은 식민지 엘리트에게 극복하기 힘든 이념적, 정서적인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성제대 영문학과는 식민지 조선의 엘리트에게 자주적인 조선을 만드는 열쇠이기도 했지만 개인

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이기도 했을 것이다. 조선인 학생들이 경성제대를 택한 이유는 서구의 근대적인 세계를 배우고자 했던 욕망과 동시에 현실적인 성공을 향한 개인적 열망이 혼재되어 있었다.

경성제대에는 『청량』, 『문우』, 『신흥』 세 종류의 학회지가 있었다. 『청량』은 일본어로 발행되던 경성제대 예과 학우회 잡지, 『문우』는 조선어로 발행되던 예과 조선인 문우회 회지, 『신흥』은 조선어로 발행되던 법문학부 조선인 졸업생과 재학생 중심의 학술지이다. 이효석 경우, 예이츠(Y. B. Yeats)의 시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청량』에 싣고, 키플링(Rudyard Kipling)의 소설을 조선어로 번역하여 『신흥』에 싣고 있다. 이효석은 영어·일본어·조선어, 다시 말하자면 영미세계·일본·조선, 세 개의 세계와 대면하고 있었다.

경성제대 영문학과 재학 시절 이효석은 영국 식민지인 아일랜드와 인도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이효석이 예이츠나 존 밀링턴 싱(John Millington Synge) 같은 아일랜드 작가나 인도를 다룬 키플링의 작품을 주로 다룬 데는 당시 영문학전공 교수 사토 기요시의 영향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성제대 영문학과 교수 사토 기요시는 『아일랜드문학사(愛蘭文學史)』(1925)를 저술했다는 점이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이효석은 현실을 비판한 소설로 문단에 등장하지만 그 후 전통적 서정성에서부터 자유로운 성적 본능, 지식인의 자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소설을 거쳐 마침내 친일소설에 도달한다. 이러한 행적은 조선어를 소홀히 하고 영어와 일본어에 집중했던 경성제대 영문학과와 결코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Ⅲ. 도쿄제대 출신 나쓰메 소세키의 작품세계 - 서구 비판에서 제국주의로

1.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 서구문명비판

도쿄제대 영문학과 출신인 나쓰메 소세키는 일본의 셰익스피어라 불리는 메이지시대를 대표하는 국민작가이다. 초기 도쿄제대 영문학과 졸업문인들이 서구와 일본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는 경성제대 영문학과 졸업 조선인 문인 의식의 특질을 넘어, 식민지 제대 출신 엘리트들의 의식의 실재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는 『호토토기스』(1905-1906)에 발표한 소세키의 데뷔작이다. 1인칭 화자인 고양이는 이름이 없으며 인간의 마음을 읽기도 하고 옆집의 암코양이 미케코에 연정을 품기도 한다. 마지막에는 맥주를 마시고 취해 술독에서 나오지 못해 빠져죽는다. 고양이 이면서도 인간 생태를 잘 파악하고 동서고금의 문예와 철학에 능통하고 혼자 사색에 빠지기도 한다.¹⁶⁾ 태어나서 바로 주인에게 버려지고 살기 위해 구사미선생집에 정착하게 된 고양이는 처음에는 인간을 경멸했지만 점점 존경하게 되고 인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음은 고양이가 집주인 구사미선생을 몰래 관찰하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한 부분이다.

이 집주인은 좀처럼 나와 마주친 적이 없다. 그의 직업은 학교선생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종일 서재에 틀어박힌 채 거의 나오지 않는다.

16) 안영희, 「동아시아의 근대와 근대 지식인-나쓰메 소세키, 루쉰, 이광수-」, 『일본어문학』 제71집, 일본어문학회, 2015, p.362. 참고.

식구들은 그를 대단한 면학가인 줄 알고 있다. 그 자신도 면학가인 척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식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근면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가끔씩 발소리를 죽여가며 그의 서재를 엿보곤 하는데, 거의 낮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끔씩은 읽다 만 책 위에 침을 흘리기도 한다. 그는 위가 약하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피부 빛이 담황색을 띠고 활발치 못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 주제에 밥은 무척 많이 먹는다. 그렇게 먹고 나선 다카디아스타제라는 소화제를 먹는다. 그리고 나서 책을 펼친다. 2, 3페이지 읽으면 또 즐기 시작한다. 침을 책 위에 흘린다. 이것이 그가 매일 밤 되풀이하는 일과다.¹⁷⁾

고양이의 눈으로 바라본 중학교 영어교사인 진노 구샤미(珍野苦沙弥)는 가족들이 매우 훌륭한 면학가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면하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도 않으며 침을 흘리며 낮잠이나 자는 한심한 인물이다. 구샤미선생은 선천적으로 위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식욕을 참지 못해 매번 과식을 한다. 가족들조차 알지 못하는 구샤미의 고집불통이며 위선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고양이를 통해 폭로하는 것이다.

이 소설은 고양이(吾輩)의 시점에서 주인인 구샤미 선생의 일가와, 그의 집에 모이는 그의 친구들 및 제자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소세키가 모델인 듯한 고양이의 주인인 구샤미는 슬하에 자식 3명을 두고 있으며 편협한 성격으로 노이로제와 위장병을 앓고 있다. 그의 친구인 미학자 메이테이(迷亭)는 거짓말과 꾀변으로 다른 이를 속이는 것이 취미다. 구샤미의 옛 제자인 미즈시마 간게쓰(水島寒月)는 엉뚱한 논문을 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학자로 상당한 호남이다. 이 소설은 오만하고 방자한 고양이가 자신이 고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 세계의 일원이라는 망

17) 夏目漱石 『漱石全集』 제1권 『吾輩は猫である』, 岩波書店, 1993. p.6

상에 사로잡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와 위선적 교양주의에 물든 지식인의 군상과 사회 전체를 풍자하고 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인간에 대한 고양이의 예리한 관찰을 보여주는 고양이 관찰자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고양이를 화자로 한 독특한 구상으로 인간세계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고양이의 등장으로 통상적인 인간의 가치체계에서 해방됨으로써 작가는 인간을 비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다. 즉 소세키는 고양이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윤리나 가치관, 규범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인간세계의 추악함을 조소하고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⁸⁾ 따라서 소설은 허무맹랑하며 해학적인 성격을 가진다. 소세키는 고양이의 눈을 통해 “인간사회의 조소를 통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압박하는 사회구조를 해체하고 붕괴해 자기 해방을 실현”¹⁹⁾하고자 했다. 이 소설은 고양이의 시점에서 인간 만상을 풍자하거나 비판한 작품이며 문명비판에 대한 소세키의 생각이 잘 나타난다.

2. 『마음』 - 메이지정신과 제국주의

『마음』(こゝろ)은 『朝日新聞』(1914.4-8)에 연재되었다. 『마음』은 주인공인 ‘나’와 ‘선생님’을 통해 마음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로 인간의 ‘마음’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인간의 고뇌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있다. 내용은 크게 <상편 선생님과 나>, <중편 부모님과 나>, <하편 선생님과 유서>로 나누어져 있고 현재 주인공 나의 시점에서 현재와

18) 안영희, 앞의 논문, p.362. 참고.

19) 潘世聖 『魯迅, 明治日本, 漱石—影響と構造への總合的比較研究』, 汲古書院, 2002, p.245.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상편 선생님과 나>에서 대학생인 주인공 나는 여름방학에 가마쿠라 해변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교류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병환으로 고향에 내려가게 되고 상편이 끝난다. <중편 부모님과 나>에서 주인공 나는 아버지의 병으로 도쿄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다가 도쿄의 선생님으로부터 답장을 받게 된다. 편자가 유서임을 암시하는 글을 읽고 도쿄로 간다.

<하편 선생님과 유서>는 선생님의 유서 내용이다. 이 부분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편 선생님과 유서>는 친구를 배신하고 아내를 얻은 선생님이 죄의식을 느끼고 자살한다는 내용이다. 선생님은 고향을 떠나와서 하숙을 하면서 하숙집 딸인 시즈를 사랑하게 된다. 한편 친구 K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그를 하숙집으로 데려온다. 세 사람은 삼각관계가 되고 선생님과 시즈가 결혼하자 K가 자살하게 된다. K가 자살하자 선생님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직업도 없이 폐인처럼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한다. 선생님은 평생 K를 배반했다는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외롭게 살아간다. 이 소설에서는 남녀의 삼각관계와 금전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주요 테마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선생님의 자살을 메이지의 종말과 천황의 죽음으로 연관시키고 있다. 『마음』은 선생님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시즈를 둘러싼 K와의 삼각관계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제국주의가 있다.

다음은 『마음』의 마지막 부분이다. 제국주의의 실현을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여름 더위가 한창일 때 메이지천황이 서거했습니다. 그 때는 메이지정신이 천황에서 시작되어 천황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천황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들이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것은 결국 시대

착오리는 생각이 강하게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중략)

나는 순사라는 말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평생 사용할 필요가 없는 말이기엔 기억 저편에 묻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농담을 듣고 처음으로 그것을 생각해냈을 때 나는 아내를 향해 만약 내가 순사한다면 메이지정신을 위해 순사할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중략)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천황의 장례식 밤에 나는 평소처럼 서재에 앉아 애도의 대포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메이지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알리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그것은 노기장군이 영구히 떠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호의를 손에 들고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순사다. 순사다.” 하고 외쳤습니다. (중략) 그로부터 2-3일 후 나는 마침내 자살할 결심을 했습니다.²⁰⁾

위의 인용에서는 메이지천황의 죽음, 그리고 일본 육군대장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와 부인 시즈코의 동반순사(殉死)에 대한 사건과 선생님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선생님은 아내에게 “내가 순사한다면 메이지정신을 위해 순사할 생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천황의 장례식 저녁에 노기 장군이 죽자 2-3일 후에 “나는 마침내 자살할 결심을 했습니다.”고 한다. 여기서 나오는 “<메이지정신>이라는 어구는 천황제와 메이지시대에 대한 나쓰메 소세키의 정치적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²¹⁾고 한다. 『마음』은 선생님의 죽음을 제국주의의 기반으로 성장한 메이지시대의 종말로 보고 있다. 메이지천황의 서거 후에 노기 장군의 순사, 선생님의 자살은 메이지정신, 즉 제국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이 메이지시대가 끝난 이상 더 이상 살아있을 가치가 없

20) 夏目漱石 『夏目漱石全集8』 筑摩書房, 1988, 下. pp.55-56 (夏目漱石 『こゝろ』 角川文庫, 1992, pp.271-272.)

21) 윤상인, 「皇國臣民을 내면화한 일본의 국민작가 -‘메이지의 정신’ 정치적 독해필요하다, 『교수신문』 (2015.11.2.).

다고 판단하고 선생님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메이지천황은 메이지정신을 상징하고 천황의 죽음은 메이지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박유하는 “『마음』이라는 텍스트가 오늘날에도 ‘메이지정신’=천황=공(公)=무사(無私)=극기라는 이데올로기를 지탱하고 보강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²²⁾고 하고 있다. 『마음』은 주로 주인공 나와 선생님의 우정과 연애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제국주의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근대 지식인을 우회적으로 그리고 있다.²³⁾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부분도 선생님의 유서이며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쓰메 소세키가 『마음』이라는 제목을 단 이유도 메이지시대를 산 나쓰메 소세키의 지나치게 결백한 윤리성과 책임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메이지정신이란 국가를 위해,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무사의 정신과도 연결된다. 근세 초기에 순사(殉死)는 신하가 주군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방법이었다. 순사는 주군을 따라 자결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피지배계급인 약자를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이 순사함으로써 순사를 미덕으로 여겼다. 또한 일본의 무사들은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거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할복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위엄과 예절을 지키려고 했다. 무사도(사무라이 정신)는 명예로운 죽음을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무사도가 메이지시대의 제국주의로 이어진 것이다. 메이지천황의 서거와 메이지시대의 종말, 그리고 노기장군과 선생님의 죽음도 주군을 따라 죽는 무사도처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메이지정신을 잘 보여준다. 선생님의 죽음은 메이지시대와

22) 박유하 지음김석희 옮김,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 문학동네, 2011, p.253.

23) 안영희, 「동아시아의 근대와 나쓰메 소세키, 루쉰, 이광수-『마음』 『광인일기』 『무정』을 통해 본 근대 지식인」, 『일본어문학』 제74집, 일본어문학회, 2016, pp.169-172. 참고.

메이지천황에 대한 강한 일체감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가 되었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 배후에는 메이지천황이 있었다. 노기장군도 선생남도 천황의 뒤를 따라 죽는 것은 메이지정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었다. 메이지정신은 국가를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롭게 죽는 것이었다. 메이지천황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킨 주범이고 제1차 세계대전까지 관여하였다. 메이지천황은 곧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다. 『마음』 텍스트의 이면에는 국가를 위해 죽을 것을 강요하는 메이지정신과 제국주의가 팽배해 있다. 이는 현대 일본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담론과 연관되는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서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에서 근대가 만들어 놓은 근대인의 불안과 실존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마음』에서 제국주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나쓰메 소세키는 영문학을 전공하였으나 한학에 대한 조예도 깊었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서구 자본주의의 폐해를 목격함으로써 맹목적으로 서구를 따라가는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그가 맹목적으로 서구를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학에 대한 소양이 깔려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일본이 전통을 기반으로 한 자주적이고 개성적인 근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서구비판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 잘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마음』에 이르면 동양적 근대의 창출을 주장하고 서구비판을 했던 그는 결국 제국주의로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일본의 근대는 서구 문명의 유입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당대 지식인의 최대 과제는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었다. 소세키는 서구문명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전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동양적 근대의 창출을 주장하

였지만 결국 서구 제국주의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한계이다.

이처럼 동경제대 영문학과 출신 나쓰메 소세키는 메이지시대 초기에 태어나 끊임없이 일본의 근대화에 대한 고민을 했고, 어느 정도 근대화가 완성된 다이쇼시대에 활약했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근대적 개인의 참된 모습을 고민한 작가였다. 그들은 제국 일본의 역할은 물론, 메이지시대와 다이쇼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과 인간의 참된 역할을 제시하였다. 결국 근대 일본정부가 제국의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설립한 제대는, 동경제대 영문학을 전공한 나쓰메 소세키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국수주의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했던 것이다.

IV. 제국대학 출신 이효석의 작품세계

- 현실비판에서 서정세계로

1. 『도시와 유령』 - 현실비판

『도시와 유령』은 『조선지광(朝鮮之光)』(1928년)에 발표되었고, 단편집 『노령근해(露嶺近海)』(1931년)에 수록되었다. 이 소설은 일인칭소설로 미장이인 ‘나’에 의하여 관찰된 현실의 단면을 고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일정한 직장도 거처도 없는 나는 동대문 밖 상업학교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거처가 없어 동대문 혹은 동묘 처마 밑에서 노숙을 한다. 어느 날 동료인 김서방과 술을 마시고 동대문으로 자러 왔으나, 이미 사람들이 차 있어 동묘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곳에서 희미한 도깨비불과 산발한 노파를 보고 유령으로 착각하고 놀라서 나온다. 다

음날 ‘나’는 유령의 정체를 확인하러 동묘 안으로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 내리치려고 하다가 그들이 유령이 아니고 혈벗은 거지 모자임을 알게 된다. 노파는 한 달 전에 깡패와 기생들이 탄 자동차에 치여 다리병신이 되어 구걸도 못하고 그곳에서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부끄러운 마음에 있는 돈을 모두 털어 주고 그곳을 빠져 나온다.

다음은 소설의 첫 부분으로 도시에서 주인공 ‘나’가 유령을 봤다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다음 인용에서 동대문 상업학교의 건설현장에 미장이로 다니면서 일을 하는 나는 도시 노동자이지만 변변한 잠자리조차 없다.

어슴푸레한 저녁 몇 리를 걸어도 사람의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무아지경인 산골짜기 비탈길, 여우의 밥이 되어 버린 해골 덩이가 푹푹 구르는 무덤 옆, 혹은 비가 축축이 뿌리는 버덩의 다 쓰러져가는 물레방앗간, 또 혹은 몇 백 년이나 묵은 듯한 우중충한 늪!

거기에는 흔히 도깨비나 귀신이 나타난다 한다. (중략) 거짓말도 아니고 환영도 아니었다. 세상 사람이 말하여 ‘유령’이라는 것을 나는 이 두 눈을 가지고 확실히 보았다.²⁴⁾

김서방과 나는 즉시 잠자리로 향하였다.

잠자리란 보들보들한 아름다운 계집이 기다리고 있는 분홍 모기장 속 두툼한 요 위인 줄은 알지 말아라. 그렇다고 어두침침한 행랑방으로 알라는 것도 아니다. 비록 반대에는 뜰길망정 어두침침한 행랑방 하나 나에게 없었다. 단지 내 몸뚱이 하나인 나는 서울 안을 못 돌아다닐 데 없이 돌아다니면서 노숙을 하였던 것이다.²⁵⁾

24) 이효석, 『이효석 단편 전집 1』, 가람기획, 2006, pp.77-78.

25) 이효석, 같은 책, p.79.

주인공이 보았다는 유령은 자동차 사고로 다리 불구가 된 거지 모자였다. 도깨비 같은 거지 모자의 몰골을 보고 유령이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주인공이 유령을 봤던 곳은 동묘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경성은 크게 일본인의 남촌과 조선인의 북촌으로 나뉘었다. 지리적, 민족적으로 분할된 경성은 황홀한 도시 풍경과 소외되고 어두운 풍경으로 구분된다. 일본에서 형성된 대중문화는 남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한다. 지배전략의 차원에서 ‘동화주의’가 본격화되고 일본 대중문화가 유행하면서 일본의 소비자본이 경성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경성이라는 공간을 작동하는 지배세력이 정치권력에서 대자본의 경제권력으로 이동하면서, 경성은 ‘민족 간의 차별과 배제’에서 ‘자본의 논리’로 그 매커니즘이 바뀐 새로운 도시가 된다.²⁶⁾ 1920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변화한 경성은 일본인은 유산자로 조선인은 무산자로 전락시킨다.

주인공인 나는 동대문 밖에 있는 상업학교 건설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는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하지만 변변한 잠자리조차 없는 도시 노동자이다. 주인공은 일을 마치고 상업학교로 표상되는 근대적 공간에서 벗어나 유령이 출몰하는 비문명적 공간으로 들어간다. 도시는 문명과 비문명적 공간이 양립하는 공간이다. 도시 거주자 모두가 도시의 화려한 근대적 문명을 향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²⁷⁾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제는 식민지의 주민들을 통치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식민지 권력 속으로 주민들을 편입시켰다. 이 소설이 발표된 1928년은 일제강점기의 도시계획사업

26) 김성연, 「꿈의 도시」 경성, 그 이면의 ‘폐허’ -이효석 「도시의 유령」을 시점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27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p.228.

27) 김상모, 「도시 공간의 인식을 통한 근대성 탐구-이효석의 「도시와 유령」을 시점으로, 『어문학』 제115집, 한국어문학회, 2012, p.386.

이 마무리될 무렵이며 도시의 불평등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동묘에 살고 있는 유령은 자동차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조선인이다. 거지모자는 당시 모던의 상징인 자동차로 인해 부상을 당한 도시 빈민이다. 동묘와 유령으로 표상된 거지모자를 비롯한 조선인 도시 빈민은 일제가 주도한 근대화에서 밀려난 것이다. 이처럼 이효석은 『도시와 유령』에서 일제에 의해 주도된 근대화와 그 근대화의 이면에 숨겨진 조선인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도시 빈민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 작품에서는 조선인들이 도시에 더 이상 유령을 만들지 않도록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와 유령』은 일인칭 형식으로 ‘나’의 일상을 고백함으로써 빈곤한 근로자의 단면을 제시한다. 또한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모자의 밑바닥 인생을 보여줌으로써 빈곤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킨다. 이 작품에서는 도시에 있는 거지 모자를 비롯해 극빈층으로 살고 있는 조선인들은 유령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유령들은 문명의 도시인 서울에 점점 늘어나기 막대한 노릇이라고 화자는 말한다. 이 책을 읽는 현명한 독자가 이 유령이 늘어가지 못하도록 투쟁에 참여할 것을 역설하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 작품은 이효석 초기문학의 특징인 경향문학으로 분류된다. 이효석의 작품 경향 변화를 보면서 당시 이념적으로 프롤레타리아를 내세우며 현실적으로 부르주아적 생활을 지향하는 당대 지식인의 분열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암울한 식민지시대 지식인의 비극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2. 『메밀꽃 필 무렵』(1936)-현실도피의 서정세계로

『메밀꽃 필 무렵』은 1936년 『조광(朝光)』에 발표된 단편소설이다. 『메밀꽃 필 무렵』은 허생원이라는 한 장돌뱅이의 삶을 통해 떠돌이 삶의 애환과 육친의 정(情)을 서정적인 필치로 그린 소설이다. 특히 배경 묘사

와 시적 문체가 조화를 이루어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효석 문학은 『도시와 유령』(1928), 『노령근혜』(1931) 등으로 대표되는 전기 소설은 현실세계를 비판한 경향소설적 특징이 강하고, 『돈』(1933)을 필두로 『산』(1936), 『들』(1936), 『메밀꽃 필 무렵』(1936) 등 후기소설은 짙은 서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서정성으로 대표되는 『메밀꽃 필 무렵』은 이방인 의식(실향의식)과 유랑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강원도 봉평 시골 장터를 떠도는 장돌뱅이의 이야기를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시적 문체로 묘사하였다. 『장미병들다』(1938)는 극단 해체로 거리를 떠도는 운동권 출신이었던 연극 배우 남죽의 이야기이다. 순수한 이념의 타락과 변질, 병듦이라는 이야기로 성병을 옮기며 떠돌고 있다. 후기소설은 주로 자연과 성애의 탐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작품경향의 변화는 1931년 만주사변과 계급문학 단체인 카프 검거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이후에 정치적 이념을 표방하는 문학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은 『메밀꽃 필 무렵』의 서정성이 짙게 드러나는 부분과 허생원이 동이에게 친자임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 서였다. 이지러는 젖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²⁸⁾

“모친의 친절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 성은 무엇이구?”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 생원은 경망하게 발을
빚디뎠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다.²⁹⁾

위의 장면에서 화자는 서정적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허생원이 느끼는 자연과의 합일을 표현하고 있다.³⁰⁾ 이 부분에서는 서사적 기능보다는 서정적인 회상에 가깝다. 서정적 회상의 특징은 주체와 대상간의 거리의 소멸과 무시간성이다. 허생원에게 있어 성처녀의 이야기는 객관적인 사건이라기보다 그의 마음 속에 주관적인 정서로 물들어 있는 이미지이다. 성처녀와의 사건은 허생원의 주관적 정서속에 융합되어 거리감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난다.³¹⁾ 이처럼 서정적인 장면은 시간진행을 알리는 서사기능보다는 무시간적인 서정적 순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 대화 장면은 동이를 통해 친자식임을 확인하려는 부분이다. 대화에서 동이 신상에 대한 정보는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허생원의 성처녀에 대한 회상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허생원에게 힘을 준다. 하지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허생원의 생활이 너무 개인적인 것

28) 이효석, 『이효석 단편 전집 2』, 가람기획, 2006, pp.15-16.

29) 이효석, 같은 책, p.19.

30) 나병철, 「이효석의 서정소설 연구」, 『연세어문학』 제20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7, p.114.

31) 나병철, 앞의 논문, 1987, p.115.

으로 제시되어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현실을 희미하게 지우고 있다. 장돌뱅이의 고달픈 삶은 일제강점기가 아니더라도 어느 시대에나 있는 한국의 시골 풍경일 것이다. 허생원의 서정적 경험은 현실의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서고 있을 때만이 당시 시대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다. 『메밀꽃 필 무렵』은 당시 어려운 식민지 상황을 서정적 묘사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효석의 문학 경향은 경성제대의 스승인 사토 기요시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토 기요시는 일본에서 영문학이 중요한 이유를 자유정신으로 꼽았고 그가 연구한 아일랜드 문학은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가 추구한 자유정신은 정치적 상황과는 관계없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였다. 제자인 이효석에게 아일랜드 문학도 제국주의에 저항하기보다는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형성해나가는 방법을 택했다는 면에서 사토 기요시와 동일하다. 경성제대는 조선과 일본 지식인이 학문에서만이라도 제국주의와 거리를 둘 수 있는 소극적 저항의 장소였다.³²⁾

하지만 아일랜드 문학은 자유정신을 표현한 문학인 동시에 저항의 문학이기도 했다. 사토 기요시가 경성제대에 부임한 이후부터 아일랜드문학 연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초기에 이효석이 아일랜드 문학에 매력을 느끼고 논문을 쓰고, 경향문학으로 작품 활동을 한 것도 저항의 문학으로서 현실 참여와 연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후기 작품에서는 점점 서정성이 극대화되면서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된다. 이효석은 재학 중에 현실비판적인 소설로 문단에 등단하고 일제말기에 내선일체의 사상을 다룬 일본어소설을 쓰고

32) 배상미, 「아일랜드 문학을 경우한 제국주의 넘어서기 -이효석과 사토 기요시의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제69집, 민족문화연구원, 2015, pp.487-488. 참고.

친일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경성제대 영문학과 출신인 최재서도 조용만도 비슷한 사상적, 문학적인 여정을 거치게 된다. 제대의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경성제대 영문학과 출신들이 이러한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영미세계와 서구의 근대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근대 일본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들인 것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영미권 교수들한테 수업을 들은 것이 아니고 도쿄제대 영문학과 출신으로부터 수업을 들었다. 그 다음으로 영어와 일본어에 몰두한 결과 조선어를 도외시했던 경성제대 영문학과와 특성이 친일의 길을 걷게 했던 것에 일조했다. 결국 제국대학 영문학과에서는 나쓰메 소세키는 제국주의로, 이효석은 내선일체의 길을 걷게 함으로써 제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V. 마무리

메이지 신정부는 부국강병을 도모하고 근대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국대학령’에 따라 제대를 설립하였다. 1886년에 제국대학(1897년에 도쿄대학대학으로 개칭), 1924년에 경성제대가 설립되었다. 제대는 미국과 유럽에 뒤지지 않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따라서 소수의 엘리트층을 선발하여 강도 높은 교육을 시켰으며 졸업 후에도 많은 혜택을 주었다. 일본의 근대화는 서양을 모델로 하였으며 서양을 따라잡는 탈아입구가 목표였다. 따라서 제대의 영문학과는 일본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국의 근대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대에서는 서구의 선진적인 기술을 일본에 이식하기 위해서 원서를 해독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입학 요건으로 삼았다. 그 중에서도 영어는 입신출세를 위

해 필요한 언어였다. 제대 영문학과는 영국과 미국을 모델로 한 일본의 근대화에 있어서 영미세계를 수용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학과였다.

도쿄제대 영문학과 출신인 나쓰메 소세키는 졸업 후 영국유학을 통해 서구 근대화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일본의 근대화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가 영문학을 선택한 이유도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첫 작품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서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인간의 이기주의와 위선, 그리고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문명사회에 대한 나쓰메 소세키의 비판적인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말년의 작품인 『마음』에서는 제국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마음』에서 메이지천황이 병사하고 메이지시대가 마감함으로써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낀 선생님도 메이지천황에 이어 죽음을 선택한다. 메이지정신은 국가를 위해 죽음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와 천황이 중심에 있었다. 메이지천황을 따라 죽음을 선택한 선생님도 메이지정신과 제국주의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인물인 것이다. 도쿄제대 영문학과에서는 일본근대를 대표하는 문호이며 국민작가인 나쓰메 소세키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한편 ‘식민지 관료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경성제대는 처음부터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경성제대 영문학과 출신인 이효석은 재학 시절에 자유정신과 저항을 표현한 아일랜드 문학에 관심을 가졌다. 아일랜드문학을 통해 민족의 자유를 염원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효석은 초기작품인 『도시와 유령』에서 사회적 빈곤의 문제를 다루면서 현실비판을 하였다. 도시에 사는 극빈층 거지 모자를 유령에 비유함으로써 가난하게 살고 있는 도시의 조선인들을 유령에 비유했다. 하지만 후기 작품인 『메밀꽃 필 무렵』이 되면 점점 현실성은 사라지고 서정성이 짙은 작품을 쓰게 된다.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허생원의 삶은 너무 개인적이어서 사회적, 역사적 현실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당시 식민지 현실에서 회피하고 있다

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결국 이효석은 일제 말기 내선일체의 사상을 다룬 일본어 소설을 창작했고, 마침내 친일의 길을 걸었다. 이는 경성제대 영문학과 출신인 최재서와 조용만도 마찬가지이다. 식민지 관료 양성이라는 제대의 설립 목적에 저항하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원했지만 결국은 친일을 길로 가게 된다. 결국 이효석을 포함한 대부분의 식민지 지식인들은 제대에서 설립 목적에 이탈하는 길을 걷지 못했다. 이것이 제대 식민지 지식인들의 한계였다.

【참고문헌】

- 김상모, 「도시 공간의 인식을 통한 근대성 탐구-이효석의 「도시와 유령」을 시점으로」, 『어문학』 제115집, 한국어문학회, 2012, p.381-406.
- 김성연, 「꿈의 도시」 경성, 그 이면의 ‘폐허’ -이효석 「도시의 유령」을 시점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27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p.227-249.
- 나병철, 「이효석의 서정소설 연구」, 『연세어문학』 제20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7, p.114.
- 사노 마사토(佐野正人), 「경성제대 영문과 네트워크에 대하여 -식민지 시기 한국문학에 있어서 ‘영문학’과 이중 언어 창작」,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6집, 한국현대문학회, 2008, p.319-336.
- 권혁건 · 박혜민, 「나쓰메 소세키의 생애와 문학에 미친 학벌 고찰-제국대학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50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11, p.183-196.
- 박유하 지음, 김석희 옮김,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 문학동네, 2011, p.253.
- 배상미, 「아일랜드 문학을 경우한 제국주의 넘어서기 - 이효석과 사토 기요시의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제69집, 민족문화연구원, 2015, pp.487-525.
- 안영희, 「동아시아의 근대와 근대 지식인-나쓰메 소세키, 루쉰, 이광수-」, 『일본어문학』 71, 2015, pp.355-380.
- _____, 「동아시아의 근대와 나쓰메 소세키, 루쉰, 이광수-『마음』 『광인일기』 『무정』을 통해 본 근대 지식인」, 『일본어문학』 제74집, 일본어문학회, 2016, pp.159-184.
- 윤상인, 「皇國臣民을 내면화한 일본의 국민작가 -메이지의 정신」 정치적 독해필요하다」, 『교수신문』(2015.11.2.).
- 윤수안, 『‘제국일본’과 영어 · 영문학』, 소명출판, 2014.
- 윤종혁, 『근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학제 변천 과정 비교연구』, 한국학술정보, 2008.
- 이광주, 『대학사』, 민음사, 1997.
- 이이야마 다케시, 「일본근대대학의 성립과 발전과정」, 『인문과학연구』 제3집,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pp.247-272.
- 이충우 · 최종고, 『다시 보는 경성제대』, 푸른사상, 2013.
- 이효석, 『이효석 단편 전집 1』, 가람기획, 2006.
- _____, 『이효석 단편 전집 2』, 가람기획, 2006.
- 齋藤兆史, 『日本人と英語』, 講談社, 2007.

夏目漱石,『吾輩は猫である』,新潮文庫,1961.

——,『夏目漱石全集8』,筑摩書房,下5,1988.

——,『こころ』角川文庫』,1992.

潘世聖,『魯迅 `明治日本 `漱石—影響と構造への総合的比較研究』,汲古書院,
2002.

Abstract

Acceptance of the Modern World by Lee Hyo-soek and Natsume
Soseki: Based on Their Experiences Majoring in English Literature
at Imperial University

An, Young-hee

Imperial University is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imperial college decree promulgated in 1886. It was established in Japan (Tokyo, Kyoto, Tohoku, Kyushu, Hokkaido, Osaka, Nagoya) and colony (Kyung-sung, Taipei). The Imperial University was established to nurture talents needed for the wealthy nation, i.e., to cultivate bureaucrats suitable for Imperial Japan. Imperial University English Literature was a very important department in accepting the Anglo-American world in the modernization of Japan modeled on England and America.

Natsume Soseki, a native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criticized the civilization society in his first work, "I am a cat." However, in the "heart" of his later years, he is heading toward imperialism.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 at Tokyo Imperial University, it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Natsume Soseki, a national writer.

Lee Hyo-seok, a native of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criticized reality in his early works, "The City and the Ghost," dealing with the problem of social poverty. However, in his late work "buckwheat flowering," the reality gradually disappeared and the work with the lyricism was written. In the end, Lee Hyo - seok created a Japanese novel about the ideology of the last days of Japanese imperialism and finally walked the path of pro - Japanese. Most colonial intellectuals, including Lee Hyo - seok, did not get out of the way at Imperial University. This was the limit of intellectual college intellectuals.

Key word : Imperial University, Tokyo Imperial University, Kyungsung Empire
University, Soseki Natsume, Lee Hyo-suk, English Literature

안영희

소속: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교수

전자우편: anyounghee21@kmu.ac.kr

이 논문은 2019년 8월 19일 투고되어
2019년 9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9월 20일 게재 확정됨.